

임지민 개인전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안녕한 날들〉
2021
캔버스에 유채
30x30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임지민 개인전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전시기간 : 2021년 7월 7일(수) - 7월 28일(수)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55점, 영상 1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707-20210728_임지민,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7월 7일(수)부터 2021년 7월 28일(수)까지 임지민(b. 1986, 서울) 개인전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을 연다. 근작 회화 55점과 영상 1점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자리다. 임지민은 일상의 풍경으로부터 작업의 소재를 발견한다. 전시에 선보이는 44점의 연작 〈안녕한 날들〉(2021)은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에 건네는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양가적인 의미를 곱씹은 결과물이다. 떠나가는 것들, 지나가는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고 온난한 회화로 옮겨 냈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보듬은 애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탄 드로잉을 재료 삼아 만든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임지민이 제작한 세 번째 영상 작품이다.

임지민은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0년에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현대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아트스페이스 영(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OCI미술관(서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양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영은미술관(광주)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인천) 등에 입주하여 작업한 이력이 있다. 최근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에 선정되었으며, 《화랑미술제 신진작가특별전: 줌-인》(2021)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주목 받았다.

2. 작품 소개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마지막 연필 두자루〉

2021

캔버스에 유채

25x25cm



〈안녕한 날들〉

2021

캔버스에 유채

30x30cm



〈안녕한 날들〉

2021

캔버스에 유채

30x30cm



〈지나가는 바람〉

2021

캔버스에 유채

100x100cm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2021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재생, 3분 4초

■ 전시 전경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전시 전경

3. 작가 노트

“그리고도 이 편지의 맨 끝에 꺾꺾 눌러 쓰나니 부디 / 당신은 사라지지 말아라”

이병률 시인의 시 ‘당신은 사라지지 말아라’의 마지막 문장이다. 시집을 읽다가 이 문장이 있는 곳에 꽃잎을 꽂아두며 이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다시 이 시집을 읽다가 꽂아두었던 꽃잎을 발견하였다. 꽃잎은 바짝 마르고 납작해진 상태로 여전히 꽃혀있었고, 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에 안도하였다.

요즘 내가 일상의 풍경, 상황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발현되는 감정은 ‘불안’이다. 그 동안 쌓여진 크고 작은 상실의 경험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조금씩 영향을 주었고, 최근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더욱 더 크고 묵직하게 마음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별일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더욱 큰 온기를 주려고 하는 만큼,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충돌되는 감정을 담은 작업들로 구성된다.

정방형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들의 제목은 <안녕한 날들> 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에도, 반가운 인사를 건넬 때에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현할 때에도 ‘안녕’이란 말을 쓴다. 만남과 반가움, 작별과 아쉬움 그리고 슬픔이 모두 담겨있는 말이다. 내가 바라본 ‘안녕한 날들’을 그리면서 이미 과거가 된 것들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헤어질 것들에 대한 그리움들을 미리 쌓아보고 있다. 언젠가 마지막 안녕 인사를 건네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를 위해 스스로 만든 대비책이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양가적인 마음의 표현이다.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업 제목은 이번 전시제목과 같은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이다.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 아쉬워 손에 받아 책 사이에 꽂아두기도 하고, 흩어지는 빛들을 잡기 위해 피아노를 치며 빛을 유인해보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들을 붙잡고 싶어서 두 손으로 새를 만들기도 한다.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또 다시 상실의 경험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 떠나며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안녕 인사가 있다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별일 없는 날들의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마지막 안녕 인사를 조금은 담담하게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드로잉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4. 작가와의 대화

Q. 작품의 소재는 어디로부터 오나.

소재는 대부분 나의 일상 속에 있는 것들과 최근의 기억들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단어나 문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내용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 가져온 수단 중 하나가 '손'이다. 어릴 적부터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른들의 손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바라보고는 했다. 담담한 척하는 걸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긴장들이 손에서는 감춰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손'은 내가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감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내 작업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손을 통해서 숨어있는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드로잉을 재료 삼아 제작한 영상 작품이 새롭다.

소재를 바라보는 감정이나, 소재로 표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작품의 채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별히 정해진 틀은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나와 거리가 먼 것, 또는 먼 기억을 무채색으로 표현하는 때도 있다.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은 무채색으로 그려질 소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회화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와 같다면 영상은 수필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회화 작업을 하며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풀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영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욕구들을 풀어보는 것 같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새는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결국은 떠나버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떠난다. 별일 없는 날들 속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안녕 인사를 대하는 마음을 담아보았다.

Q. 유채 물감과 목탄을 함께 사용하는 점이 흥미롭다.

유채와 목탄을 한 화면에 사용하면 어떠한 이질감이 만들어진다. 그 효과를 통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종이와 다르게 캔버스에는 쉽게 목탄이 올라가지 않았기에, 정착액과 안료가 들어간 콩테를 목탄과 함께 혼합해보며 방법을 찾아 나갔다. 그러다가 화면 안에 유채로 프레임을 구축하고, 그 내부를 목탄으로 작업해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마치 내가 상실의 경험들을 가져와 현재의 앨범에 꽂아두는 것 같았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쉬움과 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44점의 회화로 이루어진 <안녕한 날들>의 경우, 화면 속에 프레임과 여백이 있는 작업들이 함께 배치되며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 여겼다.

5. 작가 약력

임지민

- 1986 서울 출생
- 2010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현대미술학과 졸업
- 2019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현대미술학과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 및 성남에서 작업

개인전

- 2021 **이같이 별일 없는 날이지만,,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20 잘못 적어 밀린 답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툴앤박스, 아트스페이스 영, 서울
- 2019 잔향, 파스, 서울
개방무대, 비컷갤러리, 서울
- 2018 닫힌 문, 열린 막. 로우갤러리, 파주
- 2017 방백과 독백, 킵인터치, 서울
부유하는 기억들, 갤러리 시작, 서울
- 2016 시선의 흔적, 갤러리 그리다, 서울
- 2015 기억의 조각을 모으다,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 2021 러브 이즈 러브: 밤새워 말해봐도, 소다미술관, 화성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줌-인, 코엑스, 서울
무제,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 서울
더블루, 카라스갤러리, 서울
세상의 모든 드로잉, 갤러리인, 서울
- 2020 피어 앤 러브, 아트스페이스 영, 서울
더 데저트.xyz, SeMA창고, 서울
BGA 오프라인 쇼케이스: 피지컬, 팩토리2, 서울
서브(Sub)_,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난립예정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에세이; 나는 지금, 얼마나 충만한가!, 드로잉룸, 서울
크리에이티브 리포트, OCI미술관, 서울

- 2019 아트 포 라이프, 영등포구민센터, 서울; 스페이스 유니온, 서울
피.아카이브, 퍼블릭갤러리, 서울
- 2018 청년미술프로젝트 '미장센에 들어온 청년미술', 대구컨벤션센터, 대구
프로젝트 온 #4_움라움, 주독일한국문화원 갤러리담담, 독일
- 2017 같거나 다른,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제2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2016 영앤영 아티스트 프로젝트 3기 '커넥션', 영은미술관, 광주
- 2015 컬러 온 캔버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인간을 보는 시선, 갤러리그리다, 서울
- 2014 원더랜드,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3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서울 시민청, 서울

프로젝트

- 2021 시공간 메모장, 썬더버드, OCI 본사, 서울
- 2013 아르코 신진작가워크숍, 인사미술공간, 서울

레지던시

- 202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4기, 청주
- 2019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9기, 인천

수상

- 2021 최우수상, 화랑미술제 신진작가특별전: 줌-인, 한국화랑협회, 서울
선정,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월간 퍼블릭아트, 서울
- 2017 입선, 제2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2015 입선,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 2012 입선,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소장

- 서울시청 박물관과, 서울